

서울시의회김태수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천호 공급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범위 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현재 평형 계획을 유지한 채 주택공급 물량을 1만호로 확대할 경우 주거

비율이 약 50% 수준까지 높아져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업무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총사자와 외국인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평형 위주(공급면적 기준 평균 35평)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당 녹지면적도 7.9㎡/인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국제 인재가 집적되는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국제업무지구에 걸맞은 정주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일방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수 위원장은 주택공급 규모가 1만호까지 확대된다면 학교용지가 필요하며, 신규 학교용지를 지구 내에 확보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그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및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현 개발계획 상 공급규모인 6천 호를 초과하는 주택물량을 공급할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에 맞게 필지 형태와 규모를 조정해야 하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필지의 건축 높이를 제한 등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결과적으로 주변 획지의 건축계획과 용도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기간이 최소 2-3년 더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대교구 방문...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지원 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1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대회 준비 현황과 주요 지원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서울대교구에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회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기관의 지원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삼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미사로 진행되며, 폐막식 장소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약 7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40만

명은 해외 참가자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위해 초·중·고 학교 시설을 활용한 약 50만 명 규모의 숙박 및 급식 지원과 서울대교구에서 홈스테이 3만 명 수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지원, 대규모 인파 관리와 교통·치안 등 종합 안전대책 수립, K-컬처와의 연계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가톨릭 신자의원회 간사이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서울에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과 서울을 세계에 알리고 위상을 높일 중요한 기회"라며 "지난 2023년 새만금 세계잡버리대회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는 숙박·안전·교통·문화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교황청이 주최하는 공식 국제행사로서 특히, 레오 14세 교황이 '호스트'가 되어 전 세계 청년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인 만큼,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대교구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현상 점검은 물론 정책 수립, 예산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하남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추경 701억 심사 돌입



장기화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할 견고한 재정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701억여 원(6.72%) 증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 체계를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 체감형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회는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출석의원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정병용(위원장)·최훈종(부위원장)·정혜영·강성삼·오승철 등 5명의 의원으로 조사 특위가 꾸려졌다. 조사 특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하남도시공사의 인력 채용 공정성과 국외출장 등 행정 집행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안건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 대비 617억 1,70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6,196억 5,775만 6천 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천 원보다 4,371만 5천 원을 증액한 835억 1,383만 7천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지역연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화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이다.

송민수 기자

포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개회 예정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9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최식을 시작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26일부터 31일까지는 2026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예산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며, 같은 날 오후에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계획이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추경 예산안과 다수의 필수 민생 조례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단순한 심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논의와 추진 배경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포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재난으로 피해 입은 시민, 적극 지원해야"



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와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리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속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구리남양주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신속 지원에 참여하는 건축사가 재난 피해 주택을 신속하는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수해나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민수 기자

Advertisement for Donggu, featuring a scenic landscape and the slogan 'LIKE 동구' (Like Donggu). The text promotes Donggu as a city with no limits on what you can like, and mentions the 2026 Biennial (2026년 병오년) with a population of 220,000. It includes the logo for '진심동행 비로동부' and the slogan '중아할 수밖에 없는 매력도시 LIKE 동구'. At the bottom, it says '변화와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22만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and the logo for '대전광역시 동구'.